



포이에미[예수교회]

가정예배 순서지

찬양 | 주의 이름 높이며

기도 | 사랑의 하나님, 오늘 우리 가족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.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,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해 주세요.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

주의이름 높이며 MR

말씀 읽기 | 요한복음 20:16~18

[개역개정] ¹⁶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(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) ¹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¹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

[쉬운성경] ¹⁶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“마리아야!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“랍오니”라고 외쳤습니다(이 말은 ‘선생님’이란 뜻입니다). ¹⁷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.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.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. ‘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.’” ¹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“내가 주님을 보았어요!”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.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질문나눔

1.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"마리아야"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. 그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
2.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. 왜 그랬을까요?

삶의 이야기 |

1. 누군가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을 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나요?
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?
2. 힘들거나 외로웠던 순간이 있었나요?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나요?

축복 | 자녀를 보며 축복해 주세요.

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,
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()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.
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살아가길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,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 주세요.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

포이에미[예수교회

가정예배 순서지



너는 시냇가에
심은 나무라 MR

찬양 |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

기도 | 사랑의 하나님, 오늘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.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,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.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요한복음 20:19~21

[개역개정] ¹⁹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²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²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

[쉬운성경] ¹⁹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.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"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!" 하고 인사하셨다. ²⁰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.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. ²¹예수께서 다시 "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!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." 하고 말씀하셨다.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질문나눔

1.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
2. 예수님은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"평강이 있을지어다"라고 하셨어요.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

삶의 이야기 |

1. 무섭거나 불안해서 꼭 숨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?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"괜찮아, 내가 여기 있어."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 것 같나요?
2. 예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신다면, 내가 전할 수 있는 "평강"은 어떤 것 일까요? (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, 힘든 친구 옆에 있어 주기 같은 작은 것도 좋아요.)

예수님은 "나도 너희를 보낸다"고 말씀하셨어요. 내가 이번 주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요? 돌아가면서 나눠봅시다.

축복 | 자녀를 보며 축복해 주세요.

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, 어떤 순간에도 () 곁에 함께하실 거야. 그 평강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길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오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. 우리 가족도 무섭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의 평강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. 또한 우리가 받은 그 평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